한국 자장가 사설의 유형

尹 致 富*

目 次

Ⅰ. 머리말
Ⅱ. 한국 자장가 사설의 두 유형
Ⅲ. 전국 분포의 전형적 자장가 사설
Ⅳ. 지역성이 드러난 자장가 사설
Ⅴ. 맺음말

Ⅰ. 머 리 말

전승동요인 자장가는 어린 아이를 잠재우기 위해 남녀노소가 아이를 요람이나 그물로 만든 그네에 눕혀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또는 안거나 업거나 눕히고서 좌우로 흔들고 가볍게 볼기를 다독거리면서 음영하는 기능요이다. 자장가가 음영하는 전승동요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를 재운다는 기능과 아이에게 자도록 하는 사설은 뚜렷한 요소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창곡적 요소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자장가의 사설은 선학들이 지적한 내용[1]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모

*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조교

1) 高晶玉: 「朝鮮民謠研究」, 首善社, 1949, pp. 373~377.
고정옥은 자장가의 내용을 ① 어머니의 희망을 담은 자장가, ② 순회면요, ③ 어머니 없는 어린 아이를 재우려는 특수한 悲歌, ④ 위협으로 울음을 그치게 하는 내용의 일종의 呪句, ⑤ 엿으로 달래는 노래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자장가의 사설을 통해 현실에서의 소망이나 결핍을 상상에서 획득함으로써 삶을 정화하고 생존에 필요한 욕구들을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소위 우리의 양반들이 '喜怒不視於色'이라는 허수아비를 이상적인물로 오인하여 허위와 가식을 일삼는 동안에 우리의 서민들은 자기네의 희로애락을 다정 다한한 민요와 동요에 부치어서 자유자재로 표현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요람이 점점 사라짐과 함께, 30대 이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장가를 부르지 않고 있으며, 간혹 시골 깊숙히 가면 할머니들에 의해서 자장가가 조금씩 불려지고 있어 간신히 전승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장가의 자료 수집 및 연구는 선결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그러나, 1920년대[2] 이후 지금까지 간헐적으로나마 자장가의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다른 민요나 동요와 함께 복합적으로 수집되어 아직도 본격적으로 자장가만의 개별적인 채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조사지역이 몇몇 지역에 국한된 것은 자장가의 심층적 이해에 결함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자장가의 연구를 거의 없게 하였는데, 이는 동요나 민요는 물론 한국 시가의 전통성 연구[3]를 위해서도 극복되는 게 마땅하다. 따라서 본고는 미약하나마 동요와 민요 연구는 물론 한국 시가의 전통성 연구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민요나 동요 유형 분류의 근거는 여러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주제·구성·동기를 기준으로 하는 사설 위주의 방법들이 그것이다. 그런가 하면 자장가에는 음악적 요소와 동작적 요소도 내재하고 있어 음악적 유형 분류 내지는 동작적 유형 분류도 가능할 수 있다. 본고는 사설적 측면에서 전국 분포의 전형적 자장가와 지역성이 드러난 자장가로 양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민요든 전승동요든 그 연구가 현지조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기존 수집 자료를 통해서 불충분한 자료를 보완할 수

任東權; 「韓國民謠研究」, 集文堂, 1982, pp.169~171.
임동권은 자장가의 내용을 ① 잘 자기를 기원한 자장요, ② 은자동 금자동에 비유한 자장요, ③ 혼성된 장편 자장요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2) 嚴弼鎭; 「朝鮮童謠集」, 彰文社, 1924, p.121.
엄필진은 자장가는 조선 동요의 대표라고 하고 있는데, 이 「朝鮮童謠集」은 지금까지 밝혀진 最古의 동요집이다.

3) 金大幸; 「韓國詩의 傳統研究」, 開文社, 1980.
조동일; 「한국시가의 전통과 율격」, 한길사, 1984.

있으며, 민요나 동요의 전승 변이까지도 살필 수 있다. 따라서, 본고의 자료는 선학들의 자료와 필자가 채록한 자장가로서 〈표1〉과 같이 도합 248편[4]이다.

Ⅱ. 한국 자장가 사설의 두 유형

자장가는 다른 동요나 민요와 마찬가지로 가장 쉽게 생성, 수용되어야 하는 조건을 지니며, 보편성 있는 공감대 안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단순한 가락과 표현 형식을 취한다. 즉 가락이나 표현형식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반복된다는 속성은 자장가가 민간에 수용되는 데 있어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자장가의 각편을 창조하고 수용하는 데에는 본능적인 미적 감각과 메떨어진 창조기술로도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외적 요인인 자장가를 부를 만한 시대적·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도 자장가는 생활 자체와 밀접한 관련을 지녀야만 한다. 즉 자장가의 사설은 시대적·사회적 관련을 가질 때 더욱 공감을 가지게 되고 구연에 흥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동요나 민요에서처럼 자장가에서도 그 사설은 삶의 지속을 강하게 열망하여, 그것을 이루는 조건들이 다양하게 표현된다. 이는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 욕구가 직접·간접적인 표현으로 구체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때의 사설은 어린 아이를 잠재우기 위한 기능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 긴밀한 관련성을 갖고서 존재한다.[5] 따라서, 자장가는 창자가 구연하는 사설·기능·가락을 갖춘 노래이므로, 구

4) 자료5는 원래 16편이 실려 있으나 자료1과 중복된 3편, 자료 3과 중복된 1편, 자료 4와 중복된 1편이 빠진 11편이다. 자료6은 원래 17편이 실려 있으나 자료15와 중복된 1편이 빠진 16편이다. 자료7은 원래 48편이 실려 있으나 자료4와 중복된 1편, 자료12와 중복된 3편, 자료15와 중복된 1편이 빠진 43편이다. 중복 사실을 좀더 상세하게 말하면 ① 자료5와 중복된 것으로서 자료5의 1567번과 자료4의 p. 375의 자장가, 자료5의 1570번과 자료1의 994번, 자료5의 1572번과 자료1의 1670번, 자료5의 1576번과 자료1의 13번, 자료5의 1578번과 자료3의 p. 228의 자장가 등이며, ② 자료6과 중복된 것으로서 자료6의 1531번과 자료15의 p. 392의 자장가, ③ 자료7과 중복된 것으로서 자료7의 941번과 자료12의 p. 700의 자장가, 자료7의 952번과 자료12의 p. 699의 자장가, 자료7의 965번과 자료15의 p.392의 자장가, 자료7의 980번과 자료4의 p. 374의 자장가, 자료7의 986번과 자료12의 p.700의 자장가 등이다.

5) 張德順·趙東一·徐大錫·曺喜雄; 「口碑文學槪說」, 一潮閣, 1971, p. 80.

〈표1〉 자료

번호	저 자	서 명	발 행 처	발행년도	편수
1	金 素 雲	朝鮮口傳民謠集	第 一 書 方	1933	15
2	林 和	朝鮮民謠選	學 藝 社	1939	3
3	金思燁·崔常壽 方 鍾 鉉	朝鮮民謠集成	正 音 社	1948	5
4	高 晶 玉	朝鮮民謠研究	首 善 社	1949	4
5	任 東 權	韓國民謠集 I	集 文 堂	1961	11
6	任 東 權	韓國民謠集 III	集 文 堂	1974	17
7	任 東 權	韓國民謠集 V	集 文 堂	1975	43
8	金 榮 敦	濟州島民謠研究上	一 潮 閣	1965	25
9	任 東 權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13	文公部文化財管理局	1982	1
10	任 東 權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10	文公部文化財管理局	1979	2
11	任 晳 宰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9	文公部文化財管理局	1978	2
12	任 憲 道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6	文公部文化財管理局	1975	7
13	任 東 權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3	文公部文化財管理局	1972	5
14	任 東 權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2	文公部文化財管理局	1971	1
15	金 榮 敦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5	文公部文化財管理局	1974	5
16	成 耆 說	韓國口碑文學大系 1－3	精神文化研究院	1980	1
17	徐 大 錫	韓國口碑文學大系 2－6	精神文化研究院	1984	1
18	金 榮 振	韓國口碑文學大系 3－4	精神文化研究院	1984	3
19	崔 來 沃	韓國口碑文學大系 5－1	精神文化研究院	1980	3
20	崔 來 沃	韓國口碑文學大系 5－2	精神文化研究院	1981	2
21	池 春 相	韓國口碑文學大系 6－1	精神文化研究院	1980	4

번호	저 자	서 명	발 행 처	발행년도	편수
22	池 春 相	韓國口碑文學大系 6－2	精神文化研究院	1981	2
23	金 承 璨	韓國口碑文學大系 6－3	精神文化研究院	1984	1
24	趙 東 一	韓國口碑文學大系 7－1	精神文化研究院	1980	1
25	崔正如・姜恩海	韓國口碑文學大系 7－4	精神文化研究院	1980	4
26	崔正如・姜恩海	韓國口碑文學大系 7－5	精神文化研究院	1980	2
27	趙東一・林在海	韓國口碑文學大系 7－7	精神文化研究院	1981	1
28	林 在 海	韓國口碑文學大系 7-10	精神文化研究院	1984	2
29	崔 正 如	韓國口碑文學大系 7-12	精神文化研究院	1984	2
30	崔 正 如	韓國口碑文學大系 7-14	精神文化研究院	1985	4
31	鄭尙圤・柳鍾穆	韓國口碑文學大系 8－1	精神文化研究院	1980	1
32	鄭尙圤・柳鍾穆	韓國口碑文學大系 8－2	精神文化研究院	1980	1
33	鄭尙圤・柳鍾穆	韓國口碑文學大系 8－4	精神文化研究院	1981	1
34	崔正如・姜恩海	韓國口碑文學大系 8－6	精神文化研究院	1981	1
35	鄭尙圤・柳鍾穆	韓國口碑文學大系 8-10	精神文化研究院	1984	1
36	玄容駿・金榮敎	韓國口碑文學大系 9－1	精神文化研究院	1980	1
37	玄容駿・金榮敎	韓國口碑文學大系 9－2	精神文化研究院	1981	8
38	玄容駿・金榮敎	韓國口碑文學大系 9－3	精神文化研究院	1983	18
39	권오성・김영돈 이보형・한만형	韓國의 民俗音樂	精神文化研究院	1984	15
40	金 榮 敎	海女生活調査報告書	濟大學徒護國團	1978	3
41	金 榮 敎	學術調査報告書 第七輯	濟大國文・國語教育科	1982	1
42	金 榮 敎	學術調査報告書 第八輯	濟大國文・國語教育科	1984	6
43	金 榮 敎	白鹿語文 創刊號	濟大國語教育研究會	1986	5
44	筆 者 採 錄			1985	7
計					248

연·사설·기능·가락의 관점에서 고찰해야 한다.[6] 구연은 구비문학을 현실적으로 실체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구연의 형식은 기록화된 시어 이상의 뜻을 지닌다.[7] 구연자는 제 뜻에 따라 재창조할 수도 있으며, 자신이 구연하는 잠간 동안은 바로 시인인 것이다.[8] 그러나 자장가는 음영적 전승동요이기 때문에 그 가락은 단순하며, 문학적 연구에 있어서 그 가락이 주된 요소가 될 수 없다.

자장가는 어느 특정지역에서만 음영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구연된다. 전국적으로 구연되는 만큼 그 사설도 다양하다. 개중에는 전국에 거의 동일한 유형의 사설이 전승되는 것도 있는가 하면 사설의 넘나듦이 자유로운 것도 있다. 사설의 넘나듦이 자유로운 것은 자연적으로 그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다. 그러나, 전국에 거의 동일한 유형의 사설이 전승되는 자장가는 한국인의 공통적 정서 내지는 정신의 투영이다. 그런데, 시에는 작품 속의 화자가 존재한다.[9] C. G. Jung의 용어로 시적 페르소나(persona)라고 할 수 있는 작품 속의 화자는 그 작품체계 속에서 드러나는 얼굴을 갖는다. 민요나 전승동요에도 시적 페르소나가 제시된다. 더우기 민요나 전승동요는 적층의 장르이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공감을 받는 의식구조가 페르소나로 반영되어 나타나게 된다. 자장가의 페르소나는 한국인의 정서와 정신을 수용하여 각편으로 형상화한다. 다시 말하면 정신은 그 신체적 대응물인 뇌를 통하여 여러 가지 특징을 유전하는데, 이러한 특징이 생활 경험에 대한 당사자의 반응 방법뿐만 아니라 그가 갖게 될 경험 형태까지도 결정한다. 인간의 정신은 진화에 의해

6) 조동일;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社, 1980, p.175.

7) Ruth Finnegan; *Oral Poet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p.121.
'Performance in oral literature has till recently received less attention than the element which oral poetry more closely shares with written poetry-the text. But performance can play a crucial part in the actual realisation of this poetry as literature: for its full form is more than meaningful words on a piece of paper or in the poet's mind. This is recognised even in traditions where writing has an accepted role.

8) 金榮敎; "濟州島民謠硏究: 女性勞動謠를 中心으로", 東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3, pp.3~4.

9) C. Brooks & R. P. Warren, *Understanding Poetry*, Holt, Reinhart and Winston, 1960, p.150.
The speaker says that he hears the "mind-forged manacles" in every cry.

미리 형성되어 있어서 개인은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 어렸을 때의 과거 뿐만 아니라 그보다 중요한 인류의 과거와도 연결되어 있고, 나아가서는 생물 진화의 먼 과거와도 연결되어 있다.[10] 그러므로, 이러한 정서 내지 정신은 한국인의 미적 정서나 윤리의식 및 가치의식이다. 이 한국인의 공통적인 미적 정서나 윤리의식 및 가치의식의 투영은 사설의 끈질긴 전승력을 갖게 한다.

우리 민족의 경우 그 미적 가치 중의 하나가 유교사상의 三綱五倫이다. 유교를 중시했던 조선조 500여년 동안 이 삼강오륜의 정신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강하게 자리잡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충효사상은 유교사상의 기본으로, 특히 전국 분포의 전형적 자장가에 강하게 나타나 있다. 그런가 하면 이 충효사상은 대체로 지경닫기노래[成造歌]의 기본 주제가 돼 있고, 輓歌·勞動謠·打令·信仰性謠·精戀謠 등에 기저적 사상을 이루고 있다.[11] 또한 이 충효사상과 함께 夫婦·長幼·朋友 사이의 윤리도 함께 노래되고 있어 삼강오륜의 정신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식자층은 물론 무식한 村婦·老農·樵夫의 입에서 孔孟을 찬양하고 삼강오륜이나 충효를 구가했다는 사실은 벌써 유교의 생활화를 의미하니 이러한 생활관이 민요에도 반영을 보았기 때문이다.[12] 그런가 하면 자장가의 주체는 그 대상을 향하여 부유와 장수하기를 바란다. 乙支文德과 伯夷叔齊가 부귀영화의 표상인 반면, 三千甲子 東方朔과 石崇은 장수의 본보기이다.

[1] 은자동아 금자동아
세상천지 웃듬동아
나라에는 충신동아
어름궁게 수달피냐
사낫밋헤 미나리냐
우주공산 잣송이냐
청산봉안 대초씨냐
날어가는 학선인가
구름속에 신선인가
옷고름밋헤 옥동자요

10) Calvin S. Hall 外: 「융 심리학 입문」, 崔鉉譯, 汎友社, 1985, p. 49.
11) 鄭東華: 「韓國民謠의 史的 硏究」, 一潮閣, 1981, p. 123.
12) 任東權: 「韓國民謠硏究」, 二友出版社, 1980, p. 230.

수팔년에 밀동자라
선수불공 내아들아
녹음에진 정내딸아
은을주면 너를사랴
금을주면 너를사랴
남전북답 장만한들
이에서 더조흐며
산호진주 어덧슨들
이에서 더조흐랴
대장되건 을지문덕
충신되면 백이숙제
둥둥둥둥 둥둥둥둥
둥게둥게 둥게야
(「朝鮮口傳謠集」, 13, 서울)

사람은 누구나가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나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휴식이면서 특히 어린이들이 자는 잠은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이왕에 잠잘 바에야 큰 부자가 될 잠, 귀한 사람이 될 잠을 바랐던 것이다. [1]에서는 세상천지에서 가장 귀한 것은 아기이며, 은을 주어도 사지 못하고 금을 주어도 사지 못하는 귀동이로, 부모에 효자동이고 나라에 충신동이기를 바란다. 대장이 되려면 乙支文德이 되고, 충신이 되려면 伯夷叔齊가 되라는 것이다. 곧 을지문덕과 백이숙제는 충신의 이미지일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의 표상인 것이다. 南田北畓을 장만하는 일은 재산이 늘어나니 반가운 일이지마는 그보다도 소중한 것이 귀동인지라 자장가를 부르면서 장래에 효자동·충신동이 되고 부귀영화를 누릴 것을 바랐다. 이는 어머니 또는 할머니의 포근하고 정서적인 사랑이 담뿍 담긴 사연임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어린 아이의 자장가는 어린애의 마음과 같이 티끌도 없는 순수 그 자체의 심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 [1]의 주제는 몽고 민요의 '母訓女歌' 첫 행의 "어머님께서는 장차 그녀를 성숙한 여인으로 키웠고" 그 내용에 해당되며 이러한 심정으로 어린 아이를 잠재웠을 것이다.[13] 그런가 하면

13) 朴相圭; 「蒙古民謠研究」, 開文社, 1983, p. 85.
이때 '母訓女歌'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일본 자장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착한 아기 잠자거라"를 시초로 하는 여성다운 섬세한 애정을 함축한 사설의 내용[14]과도 일맥 상통한다.

자장가가 전국적으로 노래되기는 하지만 그 중에는 사설로 보아 그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자장가가 나타난다. 그것은 자장가와 같은 전승동요가 민요 등의 민간가요와 마찬가지로 일상적·가시적·구상적인 것으로써 제재되기 때문이다.[15] 일상주변의 것들은 제재하기 손 쉬울 뿐더러, 몸과 마음에 닿아서 쉬 긴장체계를 이룩한다는 점에서 노래의 뜻을 고조하고 그 전승력을 끈질기게 해준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자장가 속에는 많은 동식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동물의 경우 개·고양이·닭과 같은 전국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제주 자장가에 많이 나타나는 까마귀·제비 같은 것도 있다. 이외에도 참새·봉황새·꾀꼬리·비둘기·학·꿩 같은 조류와 송아지·망아지·호랑이·수달·약대·나귀 같은 짐승들도 있는데,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은 개이다. 개를 제재로 한 자장가 중에는 개의 털의 색깔에서 노래한 것, 개의 털의 모양에서 노래한 것, 개의 털의 색깔과 모양에서 노래한 것, 개의 짖는 모습에서 노래한 것, 금자동 은자동에서 유추해서 노래한 것, 개를 부르는 소리에서 노래한 것, 잠자게 하려는 의지에서 노래한 것 등 실로 다양하다. 그런데, 개의 속성에는 '큰·더러운·충성스러운·미친·세심한' 등의 이미지가 있다[16]고 하고 있으나, 한국 자장가에 등장하는 개의 의미는 이와는 좀더 다르다.

母親 將孀 撫養成人
教孀女紅 烹 飪家 務
孩子 孀到 婆家後
恭敬 侍奉 婆婆 公公
兒童 是 未來的 主人翁
教養子女 務必認 眞
家庭和睦 白首偕老
夫唱婦 隨相 敬如 賓

14) 平凡社編纂部;「世界百科大事典」第11卷, 東京:平凡社, 1963, p. 99.
最もひろく歌われているく坊やよい子だねんねしなゝをはめじ, 子守歌には當然女性らしいこまやかな情愛たたたえた歌詞か多い。

15) 金榮敦; "韓國傳承童謠와 動植物", 「口碑文學」 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p. 30.

16) T. H. Svartengren:「强意的直喩の研究」, 佐々木達譯, 東京:研究社, 1976, p. 32.
Dog (big, dirty, faithful, mad, wary).

한국 자장가에 개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개는 과거나 현재나 어디서든 우리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기록문학이든 구비문학이든 문학의 주제나 제재는 그 시대나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게 마련이다. 그런 만큼 생활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예로부터 인간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맺어왔던 개가 자장가의 사설 속에 투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다른 동물들에 비하여 함께 한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며 정을 나눌 수 있는 개가 예로부터 어디서든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개는 어린 아이와 친숙할 수 있는 동물이라는 점이다. 비단 자장가뿐만 아니라 설화 속에서도 개는 비교적 많이 등장한다. 설화 속에 드러난 개는 주인에게 충성스러우며, 주인은 개를 몹시 아끼는 내용으로 전해지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어린 아이와 개가 함께 정답게 노니는 것은 그리 희귀한 광경이 아니다. 셋째는 개의 짖는 속성과 관계된 것으로서 어린 아이의 수면에 방해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어린 아이와 친숙할 수 있는 개가 잘 짖는다는 것은 자장가의 사설 속에 결정적으로 투영될 수밖에 없다. 특히 그것이 어린 아이를 잠재워야 하는 자장가의 주체에게는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닐 수 없다. 조용히 잠들어야할 어린 아이는 개가 짖음으로 해서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개에게 우리 아기를 잠재워 주지 않을 경우 질긴 총배로 묶어서 天地沼에 드리쳤다 내쳤다 하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넷째는 개는 주인에 충성스러우며 다른 동물에 비해 몹시 영리하다는 점이다. 앞의 세 가지 요소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T. H. Svartengren이 말하고 있듯이 개는 주인에 충성스러울 뿐만 아니라 몹시 영리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생활과 개는 전부터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 이와 같은 개의 이미지는 한국 자장가 속에 여러 가지 명칭들로 노래되고 있는데, 이를 표로 만들면 〈표2〉와 같다.

식물의 경우는 고추·모과·호박·오이·참외·배추·소나무·비자나무·계수나무·버드나무 등으로, 이 가운데서 모과는 경상도 자장가에, 오이·참외·배추·비자나무는 제주 자장가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자장가의 제재가 지역적인 특색이 많이 가미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또한, 자장가를 노래하는 주된 주체자가 부녀자이고 보면 자장가는 저절로 서민성이 표출될 수밖에 없다. 특히 부녀자의 의식과 정서가 지역성과 결합될

〈표2〉 자장가에 나타난 개의 명칭

내 용 분 류	명 칭	채 록 지 역
개의 털의 색깔에서 노래한 것	검 둥 개	濟州
	검 동 개	濟州
	감 둥 개	濟州
	감 동 개	濟州
	검 정 개	濟州 珍島
	감 장 개	平山
	노 랭 이	完州
	노 랑 개	平山
	황 둥 개	濟州
	백 상 개	珍島
	바 둑 개	平山
개의 털의 모양에서 노래한 것	삽 사 리	完州
	삽 살 개	扶餘
	쌉 살 개	珍島
개의 털의 색깔과 모양에서 노래한 것	황삽사리	加平
	청삽사리	加平
개의 짖는 모습에서 노래한 것	멍 멍 개	禮山 安東 達城 南原 奉化
	망 망 개	慶南
	왕 왕 개	珍島
	콩 콩 개	安東
	자짖개[17]	巨濟
금자동 은자동에서 유추해서 노래한 것	금 동 개	濟州
	금 둥 개	濟州
	은 둥 개	濟州
	신 동 개	平山
개를 부르는 소리에서 노래한 것	워 리 개	星州
	어 리 개	永同
잠자게 하려는 의지에서 노래한 것	자 장 개	茂朱 珍島 達城 宜寧
계	28	37

17) '자짖개'는 자주 짖는 개라고 하고 있다. (鄭尙圤·柳鍾穆; 「韓國口碑文學大

때 서민성은 더욱 더 강하게 드러난다. 귀족들의 경우 설화·수수께끼·속담 등에는 참여하지만 노래하는 데는 외면한다.[18] 따라서 민요나 전승동요는 서민적일 수밖에 없으며, 자장가는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하면서 일상주변의 것들을 제재로 하기 때문에 더욱 더 서민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서민성은 어려운 생활상의 반영을 노래하는 주체자의 신세한탄과 연결된다. 이는 잠자야 할 어린 아이와 직접적으로 상관된 것이 아니라 자장가를 음영하는 과정에서 창자의 심리적 상황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다. 이는 나아가 해학적으로 발전하여 쾌감을 얻으려고 한다.

[2] 둥실둥실　　모개야
아무락구　　굵아다오
개똥밭에　　궁글어도
아무락구　　굵아다오
(「安東文化圈學術調査報告書」, 57, 奉化)

[2]는 경상북도 奉化 지방의 자장가로 아이를 업고 재우면서 아이를 모과[木瓜]에다 비유해서 모과처럼 아무렇게나 자라라고 하는 것이다. 아이를 업고 재우는 주체자는 자기 아이를 미화시켜 잘 생겼다고 하고, 귀하고 곱게 자라라고 하는 것이 상례일 터인데, [2]에서는 그러한 관념을 파괴하고 미화되어야 할 아이를 못 생긴 모과라고 하며, 귀하고 곱게 자라야 할 아이가 개똥밭에 궁글어도 좋다고 함으로써 해학이 성립되고 있다.[19] 그러므로, 자장가의 경우도 작품내용에 대한 지역적 해석에 주력해야 하며, 일반적 의미의 시가의 직능보다 이를 형성하는 문화적 특수성에서 시가의 구실을 살피는 것이 타당하다.[20]

이제 248편의 자장가를 각편별로 단락으로 분류하여 전국 분포의 전형적 자장

系」 8-2, 慶尙南道 巨濟郡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p.97.

18) 金榮敦; "민요의 기능과 사설", 「韓國文學研究入門」, 知識産業社, 1982, p. 115.

19) 趙東一; "民謠에 나타난 諧謔", 「韓國文學의 諧謔」, 時事英語社, 1982, p.61.

20) Ruth Finnegan; op. cit., p.235.
A further point worth noting is the significance of local interpretations, of a poem or of poetry generally. This too needs to be considered, not just the role of poetry in general terms, abstracted from the particulartities of the culture in which in occurs.

가와 지역성이 드러난 자장가로 나누는데, 이때 한 단락의 의미는 그 단락에 내포되어 있는 전체 내용의 개략이다. 단락의 기호는 가·나·다·라·마·바·사·아로 하며, $나_2$·$다_2$·$라_2$·$마_2$·$사_2$·$아_2$는 $나_1$·$다_1$·$라_1$·$마_1$·$사_1$·$아_1$에 비해 변이형적 성격을 띠거나 자장가의 기능적 성격과는 거리가 먼 내용으로 되어 있다.

가 : 아기에게 직접적으로 잠자기를 바라다.

$나_1$: 부귀동·보물동·보배동·일월동·으뜸동·천자동·호랑동·선녀동·비단동·채색동·춘색동·백옥동·비자동·옥자동[21]·모과동 등의 금자동 은자동이다.

$나_2$: 충신동·효자동·화목동·우애동·사랑동·유신동·의리동·원앙동·금슬동 등의 삼강오륜적인 금자동 은자동이다.

$다_1$: 금·은·여의주·산호진주보다 더 귀하다.

$다_2$: 온갖 재물을 물려 줄 아기이다.

$라_1$: 개에게 직접적으로 우리 아기를 잠재워 주기를 바라다.

$라_2$: 개에게 우리 아기를 잠재워 주지 않을 경우 총배[22]로 묶어서 天地沼에 드리치다 내치다.

$마_1$: 삼승할망에게 우리 아기를 잠재워 주기를 바라다.

$마_2$: 삼승할망에게 우리 아기를 잘 키워 주기를 바라다.

바 : 우리 아기가 잠잘 때는 옥황상제·송아지·망아지·호랑이·참새 등이 잠자기를 도와 주거나 바라다.

$사_1$: 우리 아기는 잠자고 남의 아기는 울다. (우리 아기는 꽃밭에 뉘어 놓고, 남의 아기는 고추밭에 뉘어 놓다.)

$사_2$: 우리 아기 자는 소리는 **錙器財物** 겨운 소리이고, 남의 아기 자는 소리는 **還上負債** 겨운 소리이다.

$아_1$: 우리 아기를 다른 대상이나 상황에 비유하거나 열거하면서 간접적으로 잠자기를 바라다.

$아_2$: 우리 아기를 다른 대상에 비유하면서 잘 크기를 바라다.

---

21) '옥자동'은 비자동의 댓구로서 조작된 말이라고 하고 있다. (金榮敎; 「濟州島民謠硏究 上」, 一潮閣, 1965, p.414.)

22) '총배'는 말[馬]의 갈기나 마소[牛馬]의 꼬리털로 드린 참바. (玄平孝; 「濟州島方言硏究」 資料篇, 太學社, 1985, p.563).

Ⅲ. 전국 분포의 전형적 자장가 사설

〈표1〉에 나타난 총 248편의 한국 자장가 중 전국 분포의 전형적 자장가는 92편으로 37.09%를 차지한다. 물론 이 중에는 부귀동·보물동·보배동·일월동·으뜸동·천자동·호랑동·선녀동·비단동·채색동·춘색동·백옥동·비자동·옥자동·모과동 등의 부함과 귀함을 나타내는 금자동 은자동도 나타나지만, 충신동·효자동·화목동·우애동·사랑동·유신동·의리동·원앙동·금슬동 등의 삼강오륜적인 금자동 은자동을 노래하는 자장가도 있다. 문학에 있어서 모방의 대상이 되는 행동하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우리들 이상의 선인이든지, 혹은 우리들 이하의 악인이든지, 혹은 우리와 동등한 인간이다.[23] 그런데, 자장가에 있어서의 모방의 대상이 되는 인간은 우리들 이상의 선인으로서 이상적 인물이다. 이는 자장가를 음영하는 주체자의 어린 아이에 대한 소망이 투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를 이상화시키는 가운데 부귀동 등의 부귀를 나타내는 인간상과 충신동 등의 삼강오륜적 인간상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3] 자장자장 자는구나
우리아기 잘도잔다
은자동아 금자동아
수명장수 부귀동아
은을주면 너를사랴
금을주면 너를사랴
국가에는 충성동이
부모에겐 효자동이
형제에겐 우애동이

23) Aristotle: *Poetics*,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7, p.17.
Since those who imitate imitate men in action. and these must necessarity be either worthwhile or worthless people(for definite characters tend pretty much to develop in men of action). it follows that they imitate men either better or worse than the average.

일가친척　　화목동이
동내방내　　유신동아
태산같이　　굳세거라
하해같이　　굳세거라
유명천하　　하여보자
잘두잔다　　잘두잔다
둥ㅡ둥ㅡ　　잘두잔다
우리아기　　잘도잔다

(「朝鮮民謠集成」, p. 227, 金泉)

[3]은 경상북도 金泉 지방에서 채록된 전국 분포의 전형적 자장가로, 충성동·효자동·우애동·화목동·유신동 등의 삼강오륜적인 금자동 은자동과 부귀동의 부귀를 나타내는 금자동 은자동의 인간상을 노래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들 이상의 선인이기에 금·은보다 귀하며, 태산과 하해 같이 굳세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들이 우리들 이하의 악인이든지, 혹은 우리와 동등한 인간이라면 충성동·효자동·우애동·화목동·유신동·부귀동은 될 수 없으며, 더우기 금·은보다 귀하거나 태산과 하해같이 굳셀 수도 없다. 이것은 한 작가가 작품을 통하여 창조해 놓은 인간상이 다름 아닌 그 작가 또는 그 작가가 처한 시대와 집단의 인간관을 구체화한 것이란 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性善說에 입각하여 말한다면 인간의 역사는 본질적으로 仁·義·禮·智의 四端의 실천을 위한 노력이었다. 예술에서 말하는 진·선·미의 추구도 결국 같은 뜻이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성 자체가 지닌 숙명적 결함 때문에 이의 이상적 실현이 불가능함을 안다. 그러나, 인간은 이에 대한 노력을 잠시도 포기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일차적으로 자기 생명의 분신인 자식에게서 이의 실현을 바란다.[24]

그런데, 이러한 전국 분포의 전형적 자장가는 다른 형태의 작품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옹고집타령' 속에 등장하는 자장가와 판소리 '심청가'에서 沈奉事가 沈淸을 어르는 노래가 바로 그것이다.[25]

24) 洪一植: 「韓國傳統文化試論」, 高麗大學校出版部, 1976, p. 10.
25) 金東旭: 「韓國歌謠의 硏究」, 乙酉文化社, 1961, p. 539.

[4] 은자동아 금자동아
무하자대 백옥동아
천지만물 일월동아
이국사랑 간간동아
하날같이 어지거라
땅같이 너롭거라
금을준들 너를사랴
은을준들 너를사랴
천상인간 무가보는
너하나뿐이로다

(옹고집타령)

[5] 아가아가 내딸이야 아달겸 내딸이야
금을준들 너를사며 옥을준들 너를사랴
어둥둥 내딸이야
열소경의 한막대 분방서 안둥경
새벽바람 사초롱 당기끗헤 진쥬
어름궁게 잉어로구나 어둥둥 내딸이야
남전북답 장만하들 이에서 더조흐며
산호진쥬 어덧든들 이에서 반가오랴
표진강의 숙향이가 네가되어 태엿나냐
은하수 직녀성이 네가되어 나려왓나
어둥둥 내딸이야

(심청가)

[4]의 '옹고집타령'에서는 충신동·효자동·화목동·우애동·사랑동·유신동·의리동·원앙동·금슬동 등의 삼강오륜적인 금자동 은자동이 나타나지 않는 대신 백옥동·일월동·간간동의 부귀를 나타내는 금자동 은자동을 모방적 인간상으로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4]의 "금을준들 너를사랴 은을준들 너를사랴"는 [5]의 '심청가'에서도 "금을준들 너를사며 옥을준들 너를사랴"로 단지 은이 옥으로 변이되어 나타난다. 그런데, 이 '금자동아 은자동아'를 노래한 자장가는 다른 형태의 작품 속에서도 전승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승되고 있어 전형적 자장가라고 할 수 있다. 단지 그 사설에 있어 부분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이미지는 동일한데 이는 전승되는 과정에서 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 분포의 전형적 자장가의 전형적 또는 반복적인 이미지는 한국인의 原型(archetype)이 된다. C. G. Jung은 S. Freud가 개척한 무의식의 탐구를 거듭하는 가운데 인간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의 영역, 즉 무의식에는 개인의 생활체험에서 우러나왔고 그 개인의 독특한 인생과 결부되어 있는 개인적 무의식이 있는 동시에 좀더 깊은 층에는 문화·인종·시대의식·지리적 조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무의식의 층을 집단적 무의식이라 불렀다. 개인적 무의식은 그 사람이 태어난 이후에 겪은 생활체험의 내용 가운데서 단순히 잊혀진 것, 또는 현실에 맞지 않아 억압된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며, 집단적 무의식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갖추어져 있는 인류 공통의 잠재적 능력으로서 선험적으로 정해진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다. 개인적 무의식이 개인의 생활사와 관계되는 것이라면, 집단적 무의식은 인류가 지구상에 생긴 뒤 지금까지 되풀이해서 경험해 온 것들의 총화이며 그런 체험이 침전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개인의 생활을 훨씬 선행하는 어떤 잠재력인데, 인간은 이런 층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다고 본 것이다. 집단적 무의식은 의식의 뿌리이며 모든 창조와 파괴의 가능성을 잉태하는 씨앗과 같은 것인데, 집단적 무의식을 구성하는 이러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여러 선험적 조건들을 C. G. Jung은 원형이라 불렀던 것이다.[26] 이 원형은 하나의 시를 다른 시와 연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문학경험을 통일하고 통합하는 상징적 역할을 한다.[27]

전국 분포의 전형적 자장가에서의 원형은 기교적이며 독특하고 특수하기보다는 본원적이며 일반적이고 본질적 특징을 가지는 생각이나 성격·행위·대

26) 李符永: "分析心理學과 民譚", 「民譚學槪論」, 一潮閣, 1982, pp. 111~112.

27) Northrop Frye; *Anatomy of Critic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p. 99.
The Symbol in this phase is the communicable unit, to which I give the name archetype: that is, a typical or recurring image. I mean by an archetype a symbol which connects one poem with another and thereby helps to unify and integrate over literary experience.

상·관례·배경 등이 적절히 조화하여 나타난다. 이를테면 어린 아이를 잠재우는 과정에서 어린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인간상은 우리들 이상의 선인으로서 부귀동·보물동·보배동·일월동·으뜸동·천자동·호랑동·선녀동·비단동·채색동·춘색동·백옥동·비자동·옥자동·모과동 등으로 이상화된다. 이 가운데서도 부귀동·보물동·보배동·일월동·으뜸동·천자동 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머니이면 누구나가 마음 속에 그려봄직한 이상형의 인간상들이다. 그런가 하면 호랑동·선녀동·비단동·채색동·춘색동·백옥동·비자동·옥자동·모과동 등은 한국적인 제재로 묘사된 이상형의 인간상들이다. 이 밖의 충신동·효자동·화목동·우애동·사랑동·유신동·의리동·원앙동·금슬동 등의 삼강오륜적 금자동 은자동도 인간의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선인형의 인간상으로서 자장가 속에 투영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우리 나라의 경우 조선조의 유교사상을 배경으로 그것이 보다 선명하게 형상화되었을 뿐이다. 특히 현재 전해지는 민요집이나 동요집이 1920년대 이후 간행된 것들로서 자장가의 채록은 이 시기를 전후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이는 전국 분포의 전형적 자장가 속에 삼강오륜적 금자동 은자동을 노래하는 주된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반복적이고 전형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상적 형식이 필요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문학의 형식이 문학의 내용과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학작품이 어떤 내용을 잘 전달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문학작품이 그 내용을 잘 전달하게끔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28] 따라서 이상적 형식이 原型이 되어 문학의 내용들을 알맞은 크기로 재현하게 된다.[29] 이때 이상적 형식의 표현은 자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 조건에 따라서 조절되는 것이다.[30] 전국 분포의 전형적 자장가의 이상적 형식 구조는 이상세계와 현실세계의 반복 교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의 자장가는 이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다.

28) 金治洙; "쥬네트와 構造의 개념", 「구조주의와 문학비평」, 弘盛社, 1980, p. 142.

29) 蘇斗永; 「構造主義」, 民音社, 1984, pp. 88~89.

30) Jacob Korg; *An Introdvction to Poetry*,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5, p. 46.
Organization in poetry involves a kind of partnership between the poet and the reader. The good or proper arrangement of meterials is not a natural, absolute thing, but a matter of cultural conditioning.

[6] 은자동아 금자동아
수명장수 부귀동아
칠기천금 보배동아 ① 이상세계
채색비단 오색동아
천지건곤 일월동아
은을주면 너를살가
금을주면 너를살가 ② 현실세계
국가에는 충신동이
부모에는 효자동이
형제에는 우애동이 ③ 이상세계
일가친척 화목동이
동내방내 유신동이
태산같이 굳세거라
악대같이 실하거라 ④ 현실세계
하해같이 깊으거라
유명천하 하여보자

(「朝鮮民謠研究」, p. 374, 咸陽)

이러한 이상세계와 현실세계의 반복적 교차는 자장가에 나타난 인간상이 우리들 이상의 선인으로서, 이 이상형의 인간상을 노래하기 위해서는 이상세계에 존재하는 인간상이 필요하다. 이 이상세계의 인간상은 현실세계와 대비될 때 보다 확대된 이상형으로 나타나며, 구연자의 심리적 상황을 조절하여 사설들을 통합하고 조화시킨다. [6]의 이상적 형식을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① 이상세계 – 관념성 – 추상성 – 부귀함을 나타내는 금자동 은자동
– 부귀동·보배동·오색동·일월동

② 현실세계 – 실재성 – 구상성 – 재 물 – 금·은〔귀함〕

③ 이상세계 – 관념성 – 추상성 – 삼강오륜적 금자동 은자동
– 충신동·효자동·우애동·화목동·유신동

④ 현실세계 – 실재성 – 구상성 – 표상적 이미지
– 태산〔굳셈〕·악대〔실함〕 하해〔깊음〕

위 구조화에서 ①과 ②, ③과 ④는 서로 대비되는데 외연적이기보다는 내포적인 相同性(analogy)과 유추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②와 ④의 현실세계에 나타난 대비물들은 ①과 ③의 이상세계에 나타난 이상형의 인간상들을 더욱 선명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①의 이상세계에서의 부귀동·보배동·오색동·일월동은 ②의 현실세계에서 귀한 가치척도인 금과 은을 주고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러한 관념마저도 강력히 부정하고 있다. ③의 이상세계에서의 충신동·효자동·우애동·화목동·유신동 역시 ④의 현실세계에 나타난 태산[굳셈]·악대[실함]·하해[깊음]와 같은 이미지의 금자동 은자동이기를 바란다. 이와 같은 전국 분포의 전형적 자장가에서의 이상세계와 현실세계의 반복적 교차는 시에 있어서의 연상이 단지 몇몇 사람들에게만 암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에서 출발한다는 명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31]

그런데, 이 전국 분포의 전형적 자장가의 분포상황은 〈표3〉과 같다. 이는 〈표1〉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표3〉 전국분포의 전형적 자장가의 분포 ( )속은 자료집

번호	분포도	분포지역	계
1	京畿道	서울(朝鮮口傳民謠集, 韓國民謠集Ⅰ, 韓國民謠集Ⅱ,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10) 坡州(朝鮮口傳民謠集) 龍仁(韓國民謠集Ⅴ) 華城(韓國民謠集Ⅴ)	4
2	忠淸北道	永同(韓國口碑文學大系 3-4)	1
3	忠淸南道	禮山(韓國民謠集Ⅰ) 大田(韓國民謠集Ⅴ) 燕岐(韓國民謠集Ⅴ) 唐津(韓國民謠集Ⅴ) 論山(韓國民謠集Ⅴ,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6)	5
		義城(朝鮮民謠集成, 韓國民謠集Ⅰ) 金泉(朝鮮民謠集成) 醴泉(韓國民謠集Ⅰ) 安東(韓國民謠集Ⅲ)	

31) Marjorie Boulton; *The Anatomy of Poetry*, Routledge & Kegan Paul, 1979, p. 117.
Association in poetry must obviously defend for its effect on things that are common to many people, not things that are suggested to a very few individuals only.

번호	분포도	분포지역	계
4	慶尙北道	英陽(韓國民謠集Ⅲ) 盈德(韓國民謠集Ⅴ) 禮安(韓國民謠集Ⅴ) 月城(韓國口碑文學大系 7-1) 星州(韓國口碑文學大系 7-4, 韓國口碑文學大系 7-5) 奉化(韓國口碑文學大系 7-10) 軍威(韓國口碑文學大系 7-12) 達城(韓國口碑文學大系 7-14)	12
5	慶尙南道	咸安(韓國民謠集Ⅲ,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3) 金海(韓國民謠集Ⅴ) 密陽(韓國民謠集Ⅴ) 咸陽(朝鮮民謠研究) 梁山(韓國民謠集Ⅴ) 巨濟(韓國口碑文學大系 8-1) 巨昌(韓國口碑文學大系 8-6)	7
6	全羅北道	任實(韓國民謠集Ⅴ) 扶安(韓國民謠集Ⅴ) 高敞(韓國民謠集Ⅴ) 井邑(韓國民謠集Ⅴ) 南原(韓國口碑文學大系 5-1) 完州(韓國口碑文學大系 5-2)	6
7	全羅南道	莞島(韓國民謠集Ⅲ) 高興(韓國口碑文學大系 6-3)	2
8	濟州道	濟州市(濟州島民謠研究上, 韓國口碑文學大系 9-2) 北濟州(韓國民謠集Ⅴ, 濟州島民謠研究上, 韓國口碑文學大系 9-1, 海村生活調査報告書, 學術調査報告書 第 8 輯, 白鹿語文 創刊號, 筆者採錄) 西歸浦市(濟州島民謠研究上) 南濟州(韓國口碑文學大系 9-3, 韓國의 民俗音樂 : 濟州道篇, 白鹿語文 創刊號, 筆者採錄)	4
9	黃海道	平山(朝鮮口傳民謠集) 谷山(韓國民謠集Ⅰ)	2
10	平安南道	祥原(韓國民謠集Ⅲ)	1
계			44

〈표3〉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 분포지역은 전국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상북도에서 12개 지역, 경상남도·전라북도·충청남도 등에서는 각각 7개, 6개, 5개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데, 이것은 자장가의 채록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도와 제주도에서의 4개 시군읍에서의 전승도 비교적 채록의 활발함을 말해 준다. 반면 전라남도와 충청북도를 비롯한 이북지방에서는 단지 한두 군데 지역에서만이 채록되고 있는

데, 이러한 사실은 이들 지역에서 현장 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현장조사가 보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더 많은 곳에서 이러한 유형의 자장가가 채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총 248편의 한국 자장가 중 92편의 전국 분포의 전형적 자장가를 A유형이라 하고 각편별로 편의상 A_1, A_2, A_3, ……, A_{92}로 분류하여 출전을 밝히면 〈표4〉와 같다.

〈표4〉 A유형의 출전 ( )속은 자료번호 또는 페이지

번호	자료집	각편	계
1	朝鮮口傳民謠集	A_1(13) A_2(54) A_3(1378)	3
2	朝鮮民謠選	A_4(P.246)	1
3	朝鮮民謠集成	A_5(P.227) A_6(P.228)	2
4	朝鮮民謠研究	A_7(P.373)	1
5	韓國民謠集 I	A_8(1574) A_9(1577) A_{10}(1579) A_{11}(1580) A_{12}(1581) A_{13}(1582)	6
6	韓國民謠集 III	A_{14}(1571) A_{15}(1578) A_{16}(1582) A_{17}(1583) A_{18}(1584) A_{19}(1585) A_{20}(1586) A_{21}(1588)	8
7	韓國民謠集 V	A_{22}(942) A_{23}(943) A_{24}(946) A_{25}(968) A_{26}(969) A_{27}(970) A_{28}(971) A_{29}(972) A_{30}(973) A_{31}(974) A_{32}(975) A_{33}(976) A_{34}(977) A_{35}(978) A_{36}(979) A_{37}(981) A_{38}(982) A_{39}(983) A_{40}(984) A_{41}(985)	20
8	濟州島民謠研究上	A_{42}(1373) A_{43}(1374) A_{44}(1378) A_{45}(1385) A_{46}(1391)	5

번호	자 료 집	각 편	계
9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10 : 서울篇	A_{47}(P.440)	1
10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6 : 忠淸南道篇	A_{48}(P.700)	1
11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3 : 慶尙南道篇	A_{49}(P.880) A_{50}(P.880) A_{51}(P.880)	3
12	韓國口碑文學大系 3-4	A_{52}(영동읍민요 4)	1
13	韓國口碑文學大系 5-1	A_{53}(덕과면민요 5)	1
14	韓國口碑文學大系 5-2	A_{54}(고산면민요 5)	1
15	韓國口碑文學大系 6-3	A_{55}(도양읍민요 8)	1
16	韓國口碑文學大系 7-1	A_{56}(현곡면민요 17)	1
17	韓國口碑文學大系 7-4	A_{57}(대가면민요 40) A_{58}(대가면민요 73)	2
18	韓國口碑文學大系 7-5	A_{59}(벽진면민요 60)	1
19	韓國口碑文學大系 7-10	A_{60}(소천면민요 13)	1
20	韓國口碑文學大系 7-12	A_{61}(의흥면민요 4) A_{62}(고로면민요 1)	2
21	韓國口碑文學大系 7-14	A_{63}(가창면민요 4)	1
22	韓國口碑文學大系 8-1	A_{64}(하청면민요 30)	1
23	韓國口碑文學大系 8-6	A_{65}(북상면민요 34)	1
24	韓國口碑文學大系 9-1	A_{66}(애월면민요 3)	1
25	韓國口碑文學大系 9-2	A_{67}(삼도동민요 5) A_{68}(삼도동민요 33) A_{69}(삼도동민요 34) A_{70}(삼도동민요 40) A_{71}(삼도동민요 45) A_{72}(삼도동민요 47)	6
26	韓國口碑文學大系 9-3	A_{73}(표선면민요 13) A_{74}(안덕면민요 18) A_{75}(안덕면민요 35) A_{76}(안덕면민요 36) A_{77}(안덕면민요 37) A_{78}(안덕면민요 60) A_{79}(안덕면민요 83)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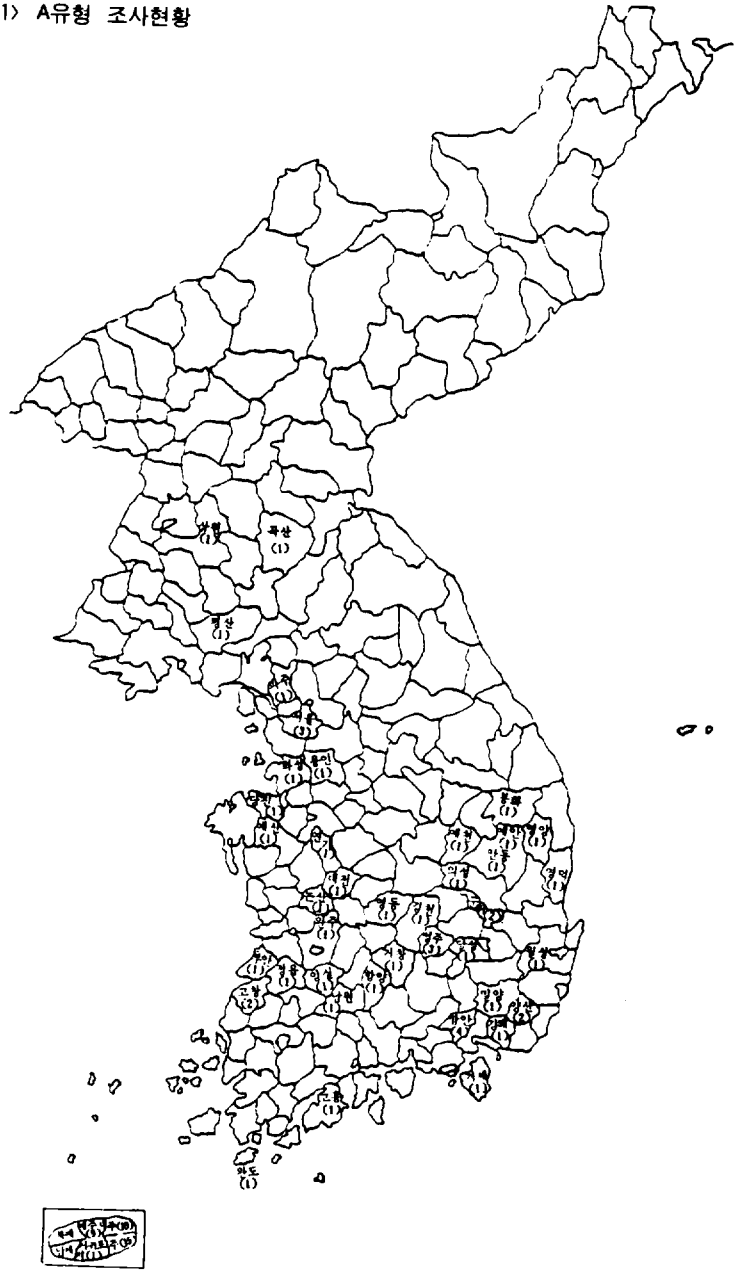
번호	자 료 집	각 편	계
		A_{80}(안덕면민요 99) A_{81}(대정읍민요 1) A_{82}(대정읍민요 33) A_{83}(남원읍민요 5)	
27	韓國의 民俗音樂 : 濟州道篇	A_{84}(168) A_{85}(169)	2
28	海村生活調査報告書	A_{86}(P.60)	1
29	學術調査報告書 第八輯	A_{87}(P.76) A_{88}(P.197) A_{89}(P.199)	3
30	白鹿語文創刊號	A_{90}(P.184) A_{91}(P.273)	2
31	筆者採錄	A_{92}	1
계			92

그런데, 〈표4〉에서 나타난 92편의 전국 분포의 전형적 자장가는 우리 나라 전역에서 전승되고 있는데, 이들 조사상황을 작성하면 〈그림1〉과 같다.

〈그림1〉에서처럼 한국 자장가 중 전국 분포의 전형적 자장가는 전국 44개 지역에서 채록되었다. 경상북도가 義城·金泉·醴泉·安東·英陽·盈德·禮安·月城·星州·奉化·軍威·達城 등 12개 지역, 경상남도가 咸安·金海·密陽·咸陽·梁山·巨濟·居昌 등 7개 지역으로 그 다음으로 많이 채록되었다. 그러나, 강원도 지방이나 황해도 이북 지방에서는 단 1편도 채록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이들 지역에서의 자장가 수집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92편의 자장가를 각편별로 단락으로 분류하여 분석해 보면 〈표5〉와 같다.

〈표5〉를 살펴볼 때 A유형에서 주된 유형 구조를 이루는 단락은 $나_1$과 $나_2$이다. 이들 나는 이상세계와 현실세계의 반복적 교차에서 각기 금자동과 은자동의 이상형으로 나타난 이상세계의 모방적 인간상을 희원하는 것으로서 전국 분포의 전형적 자장가의 핵심적 단락의 역할을 한다. 나단락이 많다는 것은 민요에 있어서 사설과 기능과 가락이 유기적 결합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기능과 가락과의 유기적 결합을 떠나 사설 위주의 각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사설이 기능에 절대적으로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과 별도로 구연됨을 말한다. $나_1$과 $나_2$는 아기를 잠재우려는 의지와는 관계

〈그림1〉 A유형 조사현황



〈표5〉 A유형의 유형구조

유형구조 / 각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나_1$	$나_2$	$다_1$	$다_2$	$라_1$	$라_2$	$마_1$	$마_2$		$사_1$	$사_2$	$아_1$	$아_2$
A_1		○	○	○									○	
A_2	○	○	○	○										
A_3		○	○	○		○					○			
A_4			○								○	○		
A_5		○	○	○										
A_6		○											○	
A_7		○	○	○									○	
A_8		○			○	○								
A_9		○											○	
A_{10}			○	○										
A_{11}		○		○									○	
A_{12}	○	○	○		○								○	
A_{13}	○	○	○		○								○	
A_{14}			○											
A_{15}	○	○	○			○				○				
A_{16}		○	○	○										
A_{17}		○		○										
A_{18}			○	○										
A_{19}			○											
A_{20}	○	○	○	○										
A_{21}		○	○										○	
A_{22}			○										○	
A_{23}			○										○	
A_{24}			○				○				○	○		
A_{25}		○											○	
A_{26}		○	○	○										
A_{27}			○	○									○	
A_{28}			○											

유형 / 구조 / 각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나_1$	$나_2$	$다_1$	$다_2$	$라_1$	$라_2$	$마_1$	$마_2$		$사_1$	$사_2$	$아_1$	$아_2$
A_{29}		○												
A_{30}		○	○	○									○	
A_{31}	○	○	○	○		○								
A_{32}	○	○		○							○		○	
A_{33}		○											○	
A_{34}		○	○											○
A_{35}	○	○		○										
A_{36}	○	○										○	○	
A_{37}	○	○		○									○	
A_{38}	○		○	○									○	
A_{39}	○	○	○	○		○						○		
A_{40}	○	○	○	○									○	
A_{41}	○	○	○	○									○	
A_{42}	○		○											
A_{43}		○		○										
A_{44}	○	○												
A_{45}	○	○												
A_{46}	○	○	○		○								○	
A_{47}		○	○	○									○	
A_{48}	○	○	○	○									○	
A_{49}		○	○										○	
A_{50}			○										○	
A_{51}	○	○		○										
A_{52}	○	○	○	○		○							○	
A_{53}	○	○											○	
A_{54}	○		○			○								
A_{55}	○	○	○											
A_{56}		○	○	○									○	○
A_{57}		○		○										○
A_{58}		○	○	○										○
												○		

유형 구조 / 각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나$_1$	나$_2$	다$_1$	다$_2$	라$_1$	라$_2$	마$_1$	마$_2$		사$_1$	사$_2$	아$_1$	아$_2$
A$_{59}$		○	○	○										
A$_{60}$	○	○				○							○	
A$_{61}$		○	○	○									○	
A$_{62}$		○	○	○									○	○
A$_{63}$	○	○		○		○								
A$_{64}$		○	○										○	
A$_{65}$	○		○	○										
A$_{66}$			○			○					○			
A$_{67}$	○	○	○	○	○						○		○	○
A$_{68}$			○				○						○	○
A$_{69}$	○		○				○							
A$_{70}$			○						○			○	○	
A$_{71}$		○	○			○								
A$_{72}$	○		○	○					○		○		○	
A$_{73}$	○		○				○				○	○	○	
A$_{74}$	○		○				○	○			○			
A$_{75}$	○		○					○					○	
A$_{76}$	○		○	○			○	○	○					
A$_{77}$	○	○				○					○			
A$_{78}$			○			○	○	○	○		○			
A$_{79}$	○		○	○			○							
A$_{80}$	○		○								○			
A$_{81}$	○	○				○							○	
A$_{82}$	○		○	○										
A$_{83}$	○		○				○	○	○		○	○	○	
A$_{84}$			○											
A$_{85}$	○		○											○
A$_{86}$		○	○										○	
A$_{87}$	○		○				○				○			
A$_{88}$			○								○			

유형 구조 / 각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나_1$	$나_2$	$다_1$	$다_2$	$라_1$	$라_2$	$마_1$	$마_2$		$사_1$	$사_2$	$아_1$	$아_2$
A_{89}	○		○				○					○	○	
A_{90}	○		○	○			○		○					
A_{91}	○		○										○	
A_{92}			○	○										

없이 구연자의 어린 아이에 대한 미래지향적 의지가 나타나 있다. 다시 말해서 과거나 현재의 괴로움이 미래지향성으로 극복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본래적 기능과는 달리 사설이 위주가 됨은 사설이 다른 구비문학 장르와 넘나들 수 있는 소지를 마련한다. 이것은 민요의 사설 속에 속담적 내용이 많이 교류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32] 뿐만 아니라 민요내에서도 다른 유형의 민요의 사설들이 서로 넘나들 수 있게 된다.

자장가의 구연자는 자장가의 사설들이 잠재워야 할 어린 아이의 수면과 직접적으로 일치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장가의 객체인 어린 아이들은 자장가를 구연하는 주체자의 사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장가의 구연자는 저절로 그들의 의식과 정서를 사설로써 표출한다. 이렇게 표출된 사설들은 $나_1$과 $나_2$와 같은 어린 아이에 대한 부모의 희망과 같은 내용으로 형상화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일본 자장가의 사설 중에 업저지들의 생활을 배경으로 해서 생긴 것이 많다[33]는 것에서도 입증된다. $나_1$과 $나_2$가 이상세계에서의 부모들의 희망이라면 $다_1$과 $다_2$는 현실세계에서의 자식에 대한 부모들의 최대의 찬사이다. 비록 직접적으로 잠자기를 바라는 가단락이 자장가에 있어서는 기본적 단락이 되지마는 자장가의 사설들을 더욱 더 다양하게 하며 문학적으로 더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나_1$과 $나_2$ 같은 단락들이다. 단지 자장가의 사설들이 직접적으로 잠자기만을 바라는 것이라면 그것은 문학적으로도 별 가치가 없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과 정서가 나단락이나 다단락과

32) 金榮敦: "民謠와 他口碑文學과의 交流",「제주대학논문집」 제10집, 1979, p.23.

33) 平凡社編纂部: 앞의 책, p.99.
傳存の歌詞にはころした子守女の生活を背景として生まれたと思われろものが多く.

같은 내용으로 형상화됨으로써 자장가의 문학성은 더욱 드러나는 것이다. 더우기 우리 아기를 다른 대상이나 상황에 비유하거나 열거하면서 잘 크기를 바라거나 간접적으로 잠자기를 바라는 아단락은 자장가의 사설들을 단조로움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처럼 자장가의 후렴인 "자장자장"에 가장 가까운 내용의 가단락 이외에 나머지 단락들이 자장가 유형구조의 단락적 요소로 나타나는 것은 원초적 자장가와는 그 성격이 달리 구연자들의 현실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전국 분포의 전형적 자장가에서 $나_1$과 $나_2$단락이 A유형의 필수적 유형구조가 되고 있음은 한국인의 미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해 준다. 그 가운데서도 $나_2$단락은 삼강오륜적 유교사상이 한국인의 미적 가치로 이상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표5〉에서 동일한 단락으로 유형구조를 이루는 각편들을 하위유형[34]으로 다시 분류하면 〈표6〉과 같다. 이때 하위유형의 기호화는 A^1, A^2, A^3, ……, A^{59}로 한다. 이들 동일한 유형구조의 하위유형은 단락의 결합순서가 일정한 것도 있는가 하면, 일정하지 않고 앞뒤 순서가 바뀌어 결합되어 있는 것도 있다.

하위유형에서 단락의 결합순서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은 자장가를 둘러싼 외적 요인과의 관계가 밀접함을 의미하는데, 곧 상황과의 밀접성이며 시대적인 상황에서부터 구연상황까지 통틀어 일컫는다. 어린 아이를 잠재우기 위한 자장가가 그 대상이 잠자는 시대적 상황이나 주체자의 심리적 상황에 따라 이들 사설들의 선후관계는 자유롭게 넘나든다. 이는 서사민요나 설화의 유형구조가 정연한 사실과는 구별되는 특성이다.[35]

〈표6〉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A유형의 하위유형에서는 A^1과 같은 한 개 단락의 유형구조에서부터 A^{59}와 같은 여덟 개 단락의 유형구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자장가의 유형구조가 다양하다는 것은 자장가 자체가 서사적 구조를 가졌다기보다는 구연상황에 따라 사설의 선후관계가 자유롭게 넘나들

34) 趙東一: 「叙事民謠研究」, 啓明大出版部, 1970, p.66.
하위유형이란 같은 유형에 속하면서도 단락 중 몇 가지가 더 있고 덜 있는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고 말하고 있다.

35) 조동일: "영웅이야기의 유형: 분류방법 모색을 위한 시도", 「口碑文學」 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p.10.

〈표6〉 A유형의 하위유형 구조

하위유형	유 형 구 조	각 편	편수
A^1	나$_1$	A_{29}	1
A^2	나$_2$	A_{14} A_{19} A_{28} A_{50} A_{84}	5
A^3	가+나$_1$	A_{44}	1
A^4	가+나$_2$	A_{42} A_{85}	2
A^5	나$_1$ +다$_1$	A_{17} A_{43}	2
A^6	나$_1$ +아$_1$	A_6 A_9 A_{25} A_{33}	4
A^7	나$_2$ +다$_1$	A_{10} A_{18} A_{92}	3
A^8	나$_2$ +사$_1$	A_{88}	1
A^9	나$_2$ +아$_1$	A_{22} A_{23}	2
A^{10}	가+나$_1$ +다$_1$	A_{35}	1
A^{11}	가+나$_1$ +아$_1$	A_{45} A_{52}	2
A^{12}	가+나$_2$ +다$_1$	A_{65} A_{82}	2
A^{13}	가+나$_2$ +라$_1$	A_{54}	1
A^{14}	가+나$_2$ +라$_2$	A_{69}	1
A^{15}	가+나$_2$ +사$_1$	A_{80}	1
A^{16}	가+나$_2$ +아$_1$	A_{91}	1
A^{17}	나$_1$ +나$_2$ +다$_1$	A_5 A_{16} A_{26} A_{59}	4
A^{18}	나$_1$ +나$_2$ +라$_1$	A_{71}	1
A^{19}	나$_1$ +나$_2$ +아$_1$	A_{21} A_{59} A_{64}	3
A^{20}	나$_1$ +나$_2$ +아$_2$	A_{34} A_{86}	2
A^{21}	나$_1$ +다$_1$ +아$_1$	A_{11}	1
A^{22}	나$_1$ +다$_2$ +아$_2$	A_{57}	1
A^{23}	나$_1$ +다$_2$ +라$_1$	A_8	1
A^{24}	나$_2$ +다$_1$ +아$_1$	A_{27}	1
A^{25}	나$_2$ +라$_1$ +사$_1$	A_{66}	1
A^{26}	나$_2$ +사$_1$ +사$_2$	A_4	1
A^{27}	가+나$_1$ +나$_2$ +다$_1$	A_2 A_{20}	2
A^{28}	가+나$_1$ +다$_1$ +라$_1$	A_{63}	1
A^{29}	가+나$_1$ +다$_1$ +아$_1$	A_{37} A_{51}	2
A^{30}	가+나$_1$ +라$_1$ +사$_1$	A_{77}	1

하위유형	유 형 구 조	각 편	편수
A^{31}	가+나$_1$+라$_1$+아$_1$	A_{60} A_{81}	2
A^{32}	가+나$_1$+사$_2$+아$_1$	A_{36}	1
A^{33}	가+나$_2$+다$_1$+라$_2$	A_{79}	1
A^{34}	가+나$_2$+다$_1$+아$_1$	A_{38}	1
A^{35}	가+나$_2$+마$_1$+아$_1$	A_{75}	1
A^{36}	나$_1$+나$_2$+다$_1$+아$_1$	A_1 A_7 A_{30} A_{47} A_{58} A_{61}	6
A^{37}	나$_1$+나$_2$+다$_1$+아$_2$	A_{56}	1
A^{38}	나$_2$+라$_2$+사$_1$+사$_2$	A_{24}	1
A^{39}	나$_2$+라$_2$+아$_1$+아$_2$	A_{68}	1
A^{40}	나$_2$+마$_2$+사$_2$+아$_1$	A_{70}	1
A^{41}	가+나$_1$+나$_2$+다$_1$+라$_1$	A_{31} A_{52}	2
A^{42}	가+나$_1$+나$_2$+다$_1$+아$_1$	A_{41} A_{48}	2
A^{43}	가+나$_1$+나$_2$+다$_2$+아$_1$	A_{12} A_{13} A_{46}	3
A^{44}	가+나$_1$+나$_1$+라$_1$+바	A_{15}	1
A^{45}	가+나$_1$+나$_2$+아$_1$+아$_2$	A_{55}	1
A^{46}	가+나$_1$+다$_1$+사$_1$+아$_1$	A_{32}	1
A^{47}	가+나$_2$+다$_1$+라$_2$+마$_2$	A_{90}	1
A^{48}	가+나$_2$+라$_2$+마$_1$+사$_1$	A_{74}	1
A^{49}	가+나$_2$+라$_2$+사$_1$+아$_1$	A_{87}	1
A^{50}	가+나$_2$+라$_2$+사$_2$+아$_1$	A_{89}	1
A^{51}	나$_1$+나$_2$+다$_1$+라$_1$+사$_1$	A_3	1
A^{52}	나$_1$+나$_2$+다$_1$+아$_1$+아$_2$	A_{62}	1
A^{53}	가+나$_1$+나$_2$+다$_1$+라$_1$+사$_2$	A_{39}	1
A^{54}	가+나$_2$+다$_1$+라$_2$+마$_1$+마$_2$	A_{76}	1
A^{55}	가+나$_2$+다$_1$+마$_2$+사$_1$+아$_1$	A_{72}	1
A^{56}	가+나$_2$+라$_2$+사$_1$+사$_2$+아$_1$	A_{73}	1
A^{57}	나$_2$+라$_1$+라$_2$+마$_1$+마$_2$+사$_1$	A_{78}	1
A^{58}	가+나$_1$+나$_2$+다$_1$+다$_2$+사$_1$+아$_1$+아$_2$	A_{67}	1
A^{59}	가+나$_2$+라$_2$+마$_1$+마$_2$+사$_1$+사$_2$+아$_1$	A_{83}	1

뿐만 아니라 유동적 사설이 많은 서정적 구조를 지녔기 때문이다. A유형의 하위유형에서 가장 많은 편수를 차지하는 것은 나$_1$·나$_2$·다$_1$·아$_1$의 네 개 단락의 결합형인 A^{30}으로 6편이며, 나$_2$ 한 개 단락으로 이루어진 A^2형이 5편, 나$_1$과 아$_1$의 두 개 단락의 결합형인 A^6형이 4편, 나$_1$·나$_2$·다$_1$의 세 개 단락의 결합형인 A^7형이 4편이 되고 있다. 이 외에도 3편으로 나타나는 하위유형이 A^7·A^{19}·A^{13}형 등이다. 그런데, 전국 분포의 전형적 자장가 가운데 이처럼 한 개 단락의 유형구조에서 여덟 개 단락의 유형구조까지 다양한 유형구조를 이루고 있음은 단형이 자장가의 고정적 사설로 정착됨에 비해 장형일수록 유동적 사설 요소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Ⅳ. 지역성이 드러난 자장가 사설

〈표1〉에 나타난 총 248편의 한국 자장가 중 지역성이 드러난 자장가는 156편으로 62.90%를 차지하여 전국 분포의 전형적 자장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전국 분포의 전형적 자장가 가운데서도 모과동·비자동·옥자동을 노래한 금자동 은자동의 자장가는 지역성이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지역성이 드러난 자장가는 여러 가지 단락적 요소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다$_2$단락의 '온갖 재물을 물려 줄 아기이다', 라$_2$단락의 '개에게 우리 아기를 잠재워 주지 않을 경우 총배로 묶어서 天地沼에 드리치다 내치다', 마$_1$단락의 '삼승할망에게 우리 아기를 잠재워 주기를 바라다', 마$_2$단락의 '삼승할망에게 우리 아기를 잘 키워 주기를 바라다', 바단락의 '우리 아기가 잠잘 때는 옥황상제·송아지·망아지·호랑이·참새 등이 잠자기를 도와 주거나 바라다', 사$_2$단락의 '우리 아기 자는 소리는 鍮器財物 겨운 소리이고, 남의 아기 자는 소리는 還上負債 겨운 소리이다', 아$_1$단락의 '우리 아기를 다른 대상이나 상황에 비유하거나 열거하면서 간접적으로 잠자기를 바라다', 아$_2$단락의 '우리 아기를 다른 대상에 비유하면서 잘 크기를 바라다' 등의 내용은 지역성이 드러난 사설들로 나타난다.

[7] 은돌금돌　　도실금돌
고치생강　　양념딸
멩지석자　　호상딸
가마귀눌개　　ᄀᆞ뜬딸아

물아래　　알라구리
꼭ᄀᆞ뜬　　나뚤아
「濟州島民謠硏究上」, 1395, 濟州)

[7]은 濟州에서 채록된 자장가로 어린 아이를 미화시키면서 "고치생강 양념뚤", "멩지석자 호상뚤", "가마귀놀개 ᄀᆞ뜬뚤", "물아래 옥ᄀᆞ뜬뚤", "제비생이 알라구리 꼭ᄀᆞ뜬 나뚤", 등의 표현은 제주 자장가에서만 보이는 표현들이다. 이는 제주적 특색을 반영한 제재로 노래되고 있기 때문이며, 원관념 어린 아이를 노래하면서 도입한 보조관념들이다. 이와 같은 보조관념은 구연자의 의식 속에 내재되었던 것으로 구연하는 순간 자장가의 사설로 표출된 것이다. 이는 자장가의 사설 가운데 고정적 사설도 존재할 수 있으나 유동적 사설도 존재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이제 156편의 지역성이 드러난 자장가를 B유형이라 하고 각편별로 B_1, B_2, B_3, ……, B_{156}으로 분류하여 출전을 밝히면 〈표7〉과 같다.

〈표7〉 B유형의 출전　　( )속은 자료번호 또는 페이지

번호	자 료 집	각 편	계
1	朝鮮口傳民謠集	B_1(216) B_2(500) B_3(600) B_4(611) B_5(636) B_6(994) B_7(1534) B_8(1670) B_9(1977) B_{10}(2238) B_{11}(2239) B_{12}(2312)	12
2	朝鮮民謠選	B_{13}(P.245) B_{14}(P.245)	2
3	朝鮮民謠集成	B_{15}(P.227) B_{16}(P.228) B_{17}(P.229)	3
4	朝鮮民謠研究	B_{18}(P.374) B_{19}(P.376) B_{20}(P.377)	3
5	韓國民謠集 I	B_{21}(1568) B_{22}(1569) B_{23}(1571) B_{24}(1573) B_{25}(1574)	5
6	韓國民謠集 III	B_{26}(1572) B_{27}(1573) B_{28}(1574) B_{29}(1575) B_{30}(1576) B_{31}(1577) B_{32}(1579) B_{33}(1580) B_{34}(1587)	9
7	韓國民謠集 V	B_{35}(939) B_{36}(940) B_{37}(944) B_{38}(945) B_{39}(947) B_{40}(948) B_{41}(949) B_{42}(950) B_{43}(951) B_{44}(953) B_{45}(954) B_{46}(955) B_{47}(956) B_{48}(957) B_{49}(958) B_{50}(959) B_{51}(960) B_{52}(961) B_{53}(962) B_{54}(963) B_{55}(964) B_{56}(966) B_{57}(967)	23

번호	자 료 집	각 편	계
8	濟州島民謠硏究上	B_{58}(1375) B_{59}(1376) B_{60}(1377) B_{61}(1379) B_{62}(1380) B_{63}(1381) B_{64}(1382) B_{65}(1383) B_{66}(1384) B_{67}(1386) B_{68}(1387) B_{69}(1388) B_{70}(1389) B_{71}(1390) B_{72}(1392) B_{73}(1393) B_{74}(1394) B_{75}(1395) B_{76}(1396) B_{77}(1397)	20
9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13:農業·豊漁祭 ·民謠	B_{78}(P.332)	1
10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10: 서 울 篇	B_{79}(P.440)	1
11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9 : 京 畿 道 篇	B_{80}(P.455) B_{81}(P.455)	2
12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6 : 忠 淸 南 道 篇	B_{82}(P.699) B_{83}(P.699) B_{84}(P.699) B_{85}(P.699) B_{86}(P.699) B_{87}(P.700)	6
13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3 : 慶 尙 南 道 篇	B_{88}(P.880) B_{89}(P.881)	2
14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2 : 全 羅 北 道 篇	B_{90}(P.573)	1
15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5 : 濟 州 道 篇	B_{91}(P.392) B_{92}(P.392) B_{93}(P.393) B_{94}(P.393) B_{95}(P.393)	5
16	韓國口碑文學大系 1 - 3	B_{96}(청운면민요 17)	1
17	韓國口碑文學大系 2 - 6	B_{97}(안흥면민요 12)	1
18	韓國口碑文學大系 3 - 4	B_{98}(상촌면민요 4) B_{99}(황금면민요 2)	2
19	韓國口碑文學大系 5 - 1	B_{100}(금지면민요 6) B_{101}(금지면민요 19)	2
20	韓國口碑文學大系 5 - 2	B_{102}(고산면민요 1)	1
21	韓國口碑文學大系 6 - 1	B_{103}(군내면민요 25) B_{104}(군내면민요 26) B_{105}(지산면민요 37) B_{106}(지산면민요 38)	4
22	韓國口碑文學大系 6 - 2	B_{107}(엄다면민요 22) B_{108}(엄다면민요 23)	2
23	韓國口碑文學大系 7 - 4	B_{109}(대가면민요 16) B_{110}(대가면민요 17)	2
24	韓國口碑文學大系 7 - 5	B_{111}(월항면민요 33)	1
25	韓國口碑文學大系 7 - 7	B_{112}(강구면민요 24)	1
26	韓國口碑文學大系 7-10	B_{113}(봉화읍민요 3)	1
27	韓國口碑文學大系 7-14	B_{114}(화원면민요 7) B_{115}(화원면민요 8) B_{116}(화원면민요 9)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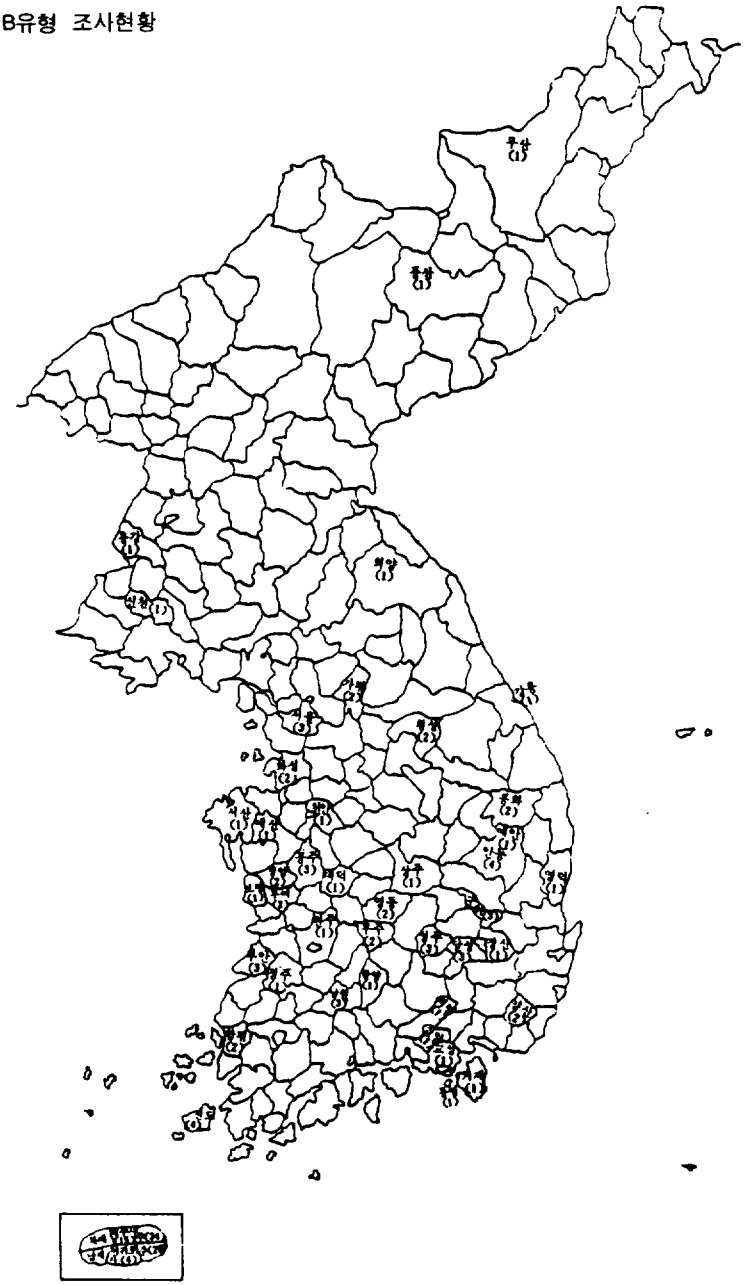
번호	자 료 집	각 편	계
28	韓國口碑文學大系 8 - 2	B_{117}(사동면민요 35)	1
29	韓國口碑文學大系 8 - 4	B_{118}(대곡면민요 7)	1
30	韓國口碑文學大系 8-10	B_{119}(부림면민요 2)	1
31	韓國口碑文學大系 9 - 2	B_{120}(삼도동민요 31) B_{121}(삼도동민요 32)	2
32	韓國口碑文學大系 9 - 3	B_{122}(서귀포시민요 2) B_{123}(표선면민요 12) B_{124}(안덕면민요 49) B_{125}(안덕면민요 74) B_{126}(안덕면민요 75) B_{127}(안덕면민요 95) B_{128}(안덕면민요 120)	7
33	韓國의 民俗音樂:濟州道篇	B_{129}(160) B_{130}(161) B_{131}(162) B_{132}(163) B_{133}(164) B_{134}(165) B_{135}(166) B_{136}(167) B_{137}(170) B_{138}(171) B_{139}(172) B_{140}(173) B_{141}(174)	13
34	海村生活調査報告書	B_{142}(P.59) B_{143}(P.61)	2
35	學術調査報告書第七輯	B_{144}(P.68)	1
36	學術調査報告書第八輯	B_{145}(P.75) B_{146}(P.198) B_{147}(P.200)	3
37	白鹿語文創刊號	B_{148}(P.186) B_{149}(P.187) B_{150}(P.272)	3
38	筆 者 採 錄	B_{151} B_{152} B_{153} B_{154} B_{155} B_{156}	6
	計		156

그런데, 〈표7〉에 나타난 156편의 지역성이 드러난 자장가의 분포상황을 작성하면 〈그림2〉와 같다.

〈그림2〉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지역성이 드러난 자장가는 우리 나라 전역에서 전승되고 있는데 전국 47개 지역에서 채록되었다. 경상북도가 慶山·尙州·達城·奉化·安東·禮安·星州·盈德·軍威·咸陽 등 10개 지역으로 가장 여러 곳에서 채록되었으며, 다음이 충청남도로 公州·禮山·靑陽·天安·扶餘·大德·保寧·瑞山 등 8개 지역, 경상남도가 固城·統營·梁山·巨濟·晋陽·宜寧 등 6개 지역이 그 다음을 차지한다. 특히 함경북도 茂山, 함경남도 豊山, 평안남도 龍岡, 황해도 信川 등지에서도 채록되고 있음은 자장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들 156편의 자장가를 각편별 단락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면 〈표8〉과 같다.

〈그림2〉 B유형 조사현황



〈표8〉 B유형의 유형구조

유형 구조 / 각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나_1$	$나_2$	$다_1$	$다_2$	$라_1$	$라_2$	$마_1$	$마_2$		$사_1$	$사_2$	$아_1$	$아_2$
B_1	○													
B_2	○										○			
B_3						○								
B_4							○							
B_5	○					○								
B_6	○					○								
B_7											○			
B_8											○			
B_9											○			
B_{10}											○			
B_{11}						○					○			
B_{12}	○					○								
B_{13}							○							
B_{14}												○		
B_{15}													○	
B_{16}	○													
B_{17}													○	
B_{18}													○	
B_{19}													○	
B_{20}													○	
B_{21}											○			
B_{22}										○				
B_{23}	○					○								
B_{24}	○						○				○			
B_{25}	○						○							
B_{26}	○												○	
B_{27}	○					○								○
B_{28}													○	

유형 구조 / 각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나$_1$	나$_2$	다$_1$	다$_2$	라$_1$	라$_2$	마$_1$	마$_2$		사$_1$	사$_2$	아$_1$	아$_2$
B29	○										○		○	
B30	○					○							○	
B31	○						○							
B32											○			
B33	○					○	○	○	○					
B34				○									○	
B35													○	
B36						○								
B37	○					○								
B38	○												○	
B39													○	
B40							○							
B41	○						○				○			
B42	○					○								
B43						○								
B44							○							
B45	○													
B46											○			
B47										○				
B48	○					○								
B49	○					○								
B50							○							
B51	○												○	
B52	○												○	
B53	○					○				○				
B54	○										○		○	
B55						○					○			
B56	○						○						○	
B57	○										○		○	
B58								○						

유형 구조 / 각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나$_1$	나$_2$	다$_1$	다$_2$	라$_1$	라$_2$	마$_1$	마$_2$		사$_1$	사$_2$	아$_1$	아$_2$
B59	○													
B60	○					○					○			
B61	○											○		
B62	○								○					
B63	○													
B64	○												○	
B65											○			
B66							○				○			
B67	○												○	
B68										○				
B69										○				
B70	○													○
B71											○			
B72	○					○				○				
B73	○					○				○			○	
B74													○	
B75													○	
B76													○	
B77								○	○					
B78													○	
B79													○	
B80	○													
B81	○					○								
B82													○	
B83	○												○	
B84	○									○				
B85	○			○									○	
B86	○												○	
B87	○					○								
B88													○	

유형 구조 / 각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나$_1$	나$_2$	다$_1$	다$_2$	라$_1$	라$_2$	마$_1$	마$_2$		사$_1$	사$_2$	아$_1$	아$_2$
B$_{89}$													○	
B$_{90}$	○					○								
B$_{91}$	○					○					○			
B$_{92}$				○	○		○	○			○		○	
B$_{93}$	○					○	○		○				○	
B$_{94}$	○						○						○	
B$_{95}$	○						○				○		○	
B$_{96}$	○													
B$_{97}$													○	
B$_{98}$													○	
B$_{99}$													○	
B$_{100}$	○					○								
B$_{101}$	○												○	
B$_{102}$	○					○								
B$_{103}$	○					○								
B$_{104}$	○										○			
B$_{105}$	○					○					○			
B$_{106}$													○	
B$_{107}$	○										○			
B$_{108}$				○									○	
B$_{109}$						○								
B$_{110}$													○	
B$_{111}$	○					○								
B$_{112}$													○	
B$_{113}$	○					○				○				
B$_{114}$													○	
B$_{115}$	○					○							○	
B$_{116}$													○	
B$_{117}$	○					○								
B$_{118}$	○												○	

유형 구조 / 각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나$_1$	나$_2$	다$_1$	다$_2$	라$_1$	라$_2$	마$_1$	마$_2$		사$_1$	사$_2$	아$_1$	아$_2$
B$_{119}$						○								
B$_{120}$	○						○							
B$_{121}$							○				○			
B$_{122}$	○						○		○		○	○	○	
B$_{123}$	○										○			
B$_{124}$	○							○	○		○			
B$_{125}$	○						○	○						
B$_{126}$	○							○	○					
B$_{127}$	○			○									○	
B$_{128}$	○								○				○	
B$_{129}$	○													
B$_{130}$							○							
B$_{131}$	○													
B$_{132}$												○		
B$_{133}$	○						○							
B$_{134}$	○										○			
B$_{135}$	○			○										
B$_{136}$	○								○					
B$_{137}$							○				○			
B$_{138}$	○			○							○			
B$_{139}$	○						○				○			
B$_{140}$						○		○						
B$_{141}$	○					○					○		○	
B$_{142}$	○			○										
B$_{143}$	○												○	
B$_{144}$	○							○	○		○			
B$_{145}$													○	
B$_{146}$	○							○	○					
B$_{147}$	○												○	
B$_{148}$	○							○	○					

유형 구조 / 작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나_1$	$나_2$	$다_1$	$다_2$	$라_1$	$라_2$	$마_1$	$마_2$		$사_1$	$사_2$	$아_1$	$아_2$
B_{149}							○							
B_{150}	○										○			
B_{151}							○							
B_{152}								○	○					
B_{153}	○													
B_{154}											○			
B_{155}							○							
B_{156}								○	○					

〈표8〉을 살펴볼 때 B유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락은 '아기에게 직접적으로 잠자기를 바라다'의 가단락과 '우리 아기를 다른 대상이나 상황에 비유하거나 열거하면서 간접적으로 잠자기를 바라다'의 $아_1$단락, 그리고 '개에게 직접적으로 우리 아기를 잠재워 주기를 바라다'의 $라_1$단락 등이다. 가단락은 자장가의 기능적 단락으로서 지역성이 드러난 자장가뿐만 아니라 전국 분포의 전형적 자장가에도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아_1$단락은 지역적인 제재들과 결합하여 지역성을 드러낸다.

[8] 자장자장　　워리자장
앞집개도　　잘도잔다
뒷집개도　　잘도잔다
개야개야　　궁궁개야
짖지를랑　　마라그리
우리아기　　잘도잔다
둥글둥글　　모개야
아문따나　　굵아라야
니치장은　　내해주마
(「韓國民謠集」V, 951, 安東)

[8]은 경상북도 安東 지방에서 채록한 자장가로 어린 아이를 모과에다 대비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원관념 어린 아이를 보조관념 모과로 비유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자장가의 제재가 일상적·가시적·구상적인 것에서 수용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개에게 우리 아기를 잠재워 주지 않을 경우 총배로 묶어서 天地沼에 드리치다 내치다'의 라$_2$는 제주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9] 검동개야 검동개야
저리가는 검동개야
이리오는 검동개야
우리애기 재와다오
느네애기 재워주마
우리애기 아니재워주면
질긴질긴 총베로
집혼집혼 처지소에
드릿쳑 내쳑활키여
웡이자랑 웡이자랑
웡이자랑 웡이자랑
(「朝鮮口傳民謠集」, 611, 濟州)

[9]는 濟州에서 채록된 자장가로 '처지소'는 '天地沼'의 오기이며 '총베'는 제주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물건이다. 자장가의 주체자는 위협적 어조로 개에게 어린 아이를 잠재워 달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이때의 위협은 단순한 위협이라기보다 간절한 소원이 애교 있게 위협으로 나타났다. 이 [9]와 같은 유형의 자장가는 제주적 자장가의 대표격이다. 그런가 하면 마$_1$단락의 '삼승할망에게 우리 아기를 잠재워 주기를 바라다'와 마$_2$단락의 '삼승할망에게 우리 아기를 잘 키워 주기를 바라다'는 내용의 자장가도 라$_2$단락과 마찬가지로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삼승할망에게 잠재워 주기를 바라거나 잘 키워 주기를 바라는 자장가가 제주 자장가의 특색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제주 특유의 무속적 본풀이가 제주 지역에서 유달리 전승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삼승할망'은 한쪽 손에 번성꽃을 쥐고 한쪽 손엔 환생꽃을 쥐어 앉아 천 리를 보고 서서 만 리를 보며, 하루 만 명씩 잉태를 주고 또 해산시키는 산신으로 성인이 되는 15세까지 키워 주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36] 또, 어린

36) 玄容駿; 「濟州島神話」, 瑞文文庫 219, 1978, p. 32.

아이에 대한 미적 묘사 또한 제주 자장가에서는 특이한데 물 아래 옥돌, 까마귀 잔날개, 제비 부리와 같은 이쁜 아이로 표현되어 있다. 물 아래 옥돌은 제주가 사면이 바다로 부녀자들의 주된 일터가 밭 이외에도 바다로서 바다에서의 해녀 생활이 그들의 의식 속에 미적으로 투영되었기 때문이다. 까마귀와 제비도 제주에서는 많이 볼 수 있는 새들로 작고도 귀여운 것들이다.

그런데, 〈표8〉에서 동일한 단락으로 유형구조를 이루는 각편들을 하위유형으로 하여 다시 분류하면 〈표9〉와 같다. 이때 하위유형의 기호화는 B^1, B^2, B^3, ……, B^{44}로 한다.

〈표9〉 B유형의 하위유형 구조

하위유형	유 형 구 조	각 편	편수
B^1	가	B_1 B_{16} B_{45} B_{59} B_{63} B_{80} B_{96} B_{129} B_{131} B_{153}	10
B^2	라$_1$	B_3 B_{36} B_{43} B_{109} B_{119}	5
B^3	라$_2$	B_4 B_{13} B_{40} B_{44} B_{50} B_{130} B_{149} B_{151} B_{155}	9
B^4	마$_1$	B_{58}	1
B^5	바	B_{22} B_{47} B_{68} B_{69}	4
B^6	사$_1$	B_7 B_8 B_9 B_{10} B_{21} B_{32} B_{46} B_{65} B_{71} B_{154}	10
B^7	사$_2$	B_{14} B_{132}	2
B^8	아$_1$	B_{15} B_{17} B_{18} B_{19} B_{20} B_{28} B_{35} B_{39} B_{74} B_{75} B_{76} B_{78} B_{79} B_{82} B_{88} B_{89} B_{97} B_{98} B_{99} B_{106} B_{110} B_{112} B_{114} B_{116} B_{145}	25

하위유형	유 형 구 조	각 편	편수
B^{9}	가+다$_1$	B_{135} B_{142}	2
B^{10}	가+라$_1$	B_5 B_6 B_{12} B_{23} B_{37} B_{42} B_{48} B_{49} B_{81} B_{87} B_{90} B_{100} B_{102} B_{103} B_{111} B_{117}	16
B^{11}	가+라$_2$	B_{25} B_{31} B_{120} B_{133}	4
B^{12}	가+마$_2$	B_{62} B_{136}	2
B^{13}	가+바	B_{84}	1
B^{14}	가+사$_1$	B_2 B_{104} B_{107} B_{123} B_{134} B_{150}	6
B^{15}	가+사$_2$	B_{61}	1
B^{16}	가+아$_1$	B_{26} B_{38} B_{51} B_{64} B_{67} B_{83} B_{86} B_{101} B_{118} B_{143} B_{147}	12
B^{17}	가+아$_2$	B_{70}	1
B^{18}	다$_1$+아$_1$	B_{34} B_{108}	2
B^{19}	라$_1$+마$_1$	B_{140}	1
B^{20}	라$_1$+사$_1$	B_{11} B_{55}	2
B^{21}	라$_2$+사$_1$	B_{66} B_{121} B_{137}	3
B^{22}	마$_1$+마$_2$	B_{77} B_{152} B_{156}	3
B^{23}	가+다$_1$+사$_1$	B_{138}	1
B^{24}	가+다$_1$+아$_1$	B_{85} B_{127}	2
B^{25}	가+라$_1$+바	B_{53} B_{72}	2
B^{26}	가+라$_1$+사$_1$	B_{60} B_{91} B_{105} B_{113}	4
B^{27}	가+라$_1$+아$_1$	B_{30} B_{115}	2
B^{28}	가+라$_1$+아$_2$	B_{27}	1
B^{29}	가+라$_2$+마$_1$	B_{125}	1
B^{30}	가+라$_2$+사$_1$	B_{24} B_{41} B_{139}	3
B^{31}	가+라$_2$+아$_1$	B_{56} B_{94}	2
B^{32}	가+마$_1$+마$_2$	B_{126} B_{146} B_{148}	3
B^{33}	가+마$_2$+아$_1$	B_{128}	1

하위유형	유 형 구 조	각 편	편수
B^{34}	가+사$_1$+아$_1$	B_{29} B_{54} B_{57}	3
B^{35}	가+다$_2$+바+아$_1$	B_{75}	1
B^{36}	가+라$_1$+바+아$_1$	B_{73}	1
B^{37}	가+라$_1$+사$_1$+아$_1$	B_{141}	1
B^{38}	가+라$_2$+사$_1$+아$_1$	B_{95}	1
B^{39}	가+마$_1$+마$_2$+사$_1$	B_{124} B_{144}	2
B^{40}	가+라$_1$+라$_2$+마$_1$+마$_2$	B_{33}	1
B^{41}	가+라$_1$+라$_2$+마$_2$+아$_1$	B_{93}	1
B^{42}	가+라$_2$+마$_2$+사$_1$+사$_2$+아$_1$	B_{122}	1
B^{43}	다$_1$+다$_2$+라$_2$+마$_1$+사$_1$+아$_1$	B_{92}	1
B^{44}	다$_1$+라$_2$+마$_1$+마$_2$+사$_1$+아$_1$	B_{57}	1

〈표9〉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B유형의 하위유형에서는 B^1과 같은 한 개 단락의 유형구조에서부터 B^{44}와 같은 여섯 개 단락의 유형구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편수를 차지하는 것은 아$_1$ 한 개 단락으로 이루어진 B^8형이 25편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가단락과 라$_1$단락의 결합형인 B^{10}형이 16편, 가단락과 아$_1$단락의 결합형이 12편, 가단락으로만 이루어진 B^1형과 사$_1$단락으로만 이루어진 B^6형이 10편 등의 순이다. 특히 '우리 아기를 다른 대상이나 상황에 비유하거나 열거하면서 간접적으로 잠자기를 바라다'의 아$_1$단락이 가장 많은 편수를 차지하는 것은 우리 아기에 대한 비유의 대상과 상황이 지역성과 결합되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자장가 구연자의 정서를 표출하는데 중요단락이 되기 때문이다. 이 아$_1$단락은 B^8형 이외에도 B^{16}형, B^{18}형, B^{24}형, B^{27}형, B^{31}형, B^{33}형, B^{34}형, B^{35}형, B^{36}형, B^{37}형, B^{38}형, B^{41}형, B^{42}형, B_{43}형, B_{44}형 등에 두루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아기에게 직접적으로 잠자기를 바라다'의 가단락으로 된 B^1형과 '우리 아기는 잠자고 남의 아기는 울다'의 사$_1$단락의 B^6형이 하위유형에 비교적 많이 나타난다.

V. 맺 음 말

이상에서 한국 자장가 사설의 유형을 고찰하였다. 한국 자장가는 한국인의 의식과 정서의 표출과 관련하여 한국인의 미적 보편성을 형상화한 전국 분포의 전형적 자장가와 지역적인 미적 보편성을 형상화한 지역성이 드러난 자장가로 분류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 결과를 결론 삼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자장가에 나타나는 전국 분포의 전형적 자장가를 A유형이라 했을 때, A유형에서 주된 유형구조를 이루는 내용은 부귀동·보물동·보배동·일월동·으뜸동·천자동·호랑동·선녀동·비단동·채색동·춘색동·백옥동·비자동·옥자동·모과동의 금자동 은자동과 충신동·효자동·화목동·우애동·사랑동·유신동·의리동·원앙동·금슬동의 금자동 은자동을 노래하는 것이다. 이들은 이상세계와 현실세계의 반복적 교차에서 각기 금자동과 은자동의 이상형으로 나타난 이상 세계의 모방적 인간상을 희원하는 것으로서 한국인의 원형을 의미하며 A유형의 핵심적 단락의 역할을 한다. 특히 충신동 등의 삼강오륜적 내용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유교사상이 미적 가치로 정립됨으로써 이의 반영이 자장가로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A유형의 하위유형은 한 개 단락의 유형구조에서부터 여덟 개 단락의 유형구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A유형의 하위 유형구조가 다양하다는 것은 자장가 자체가 서사적 구조를 가졌다기보다는 구연상황에 따라 사설의 선후관계가 자유롭게 넘나들 뿐만 아니라 유동적 사설이 많은 서정적 구조를 지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A유형은 우리 나라 전역에 걸쳐 전승되고 있는데, 황해도 이북 지방을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 수집의 불충분은 현장조사가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A유형의 사설들은 '옹고집타령'이나 판소리 '심청가'에 나타나는 자장가와도 비슷한 사설로 되어 있다.

둘째, 한국 자장가에 나타나는 지역성이 드러난 자장가를 B유형이라 했을 때, B유형에서 주된 유형구조를 이루는 내용은 '아기에게 직접적으로 잠자기를 바라다', '우리 아기를 다른 대상이나 상황에 비유하거나 열거하면서 간접적으로 잠자기를 바라다', '개에게 직접적으로 우리 아기를 잠재워 주기를 바

라다' 등이다. 이들 내용들은 자장가의 기능적 성격을 띤 내용이거나 일상주변의 것들에서 제재화하여 보편적인 삶의 의지와 잠정의 유기체로 각편들이 형상화되고 있다. 특히 '개에게 직접적으로 우리 아기를 잠재워 주기를 바라다'는 내용의 변이형적인 성격의 '개에게 우리 아기를 잠재워 주지 않을 경우 총배로 묶어서 天地沼에 드리치다 내치다'는 사설은 제주 자장가에만 나타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삼승할망에게 우리 아기를 잠재워 주기를 바라다', '삼승할망에게 우리 아기를 잘 키워 주기를 바라다'는 사설도 제주 자장가에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금자동 은자동을 모과동에 비유하는 것은 경상도 자장가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B유형의 하위유형도 한 개 단락의 유형구조에서부터 여섯 개 단락의 유형 구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는 B유형도 A유형과 마찬가지로 고정적 사설보다는 유동적 사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분포상황은 A유형에 비해서 더 많은 곳에서 채록되고 있으며, 더우기 이북 지방에서도 소수나마 채록되고 있다.

앞으로 현장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져 더 많은 자장가의 채록이 이루어질 경우 각 유형의 하위유형은 늘어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설적 측면만이 아닌 음악적 측면이나 동작적 측면에서도 자장가의 유형은 밝혀져야 할 것이다.